

한국 화단을 이끈 고(故) 오지호 화백의 아들이자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인 서양화가 오승우 화백(71). 이른바 스스로 터득한 인상파적 방법으로 '동양의 원형'을 독자적으로 해석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는 한국의 사찰과 불상, 산과 고궁은 물론 세계의 문화유산을 천착하며 전통적인 옛 풍경과 역사의 뒤안면에 묻힌 분위기가까지도 강렬한 색으로 그려왔다.

지난 96년 백두산,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등 우리나라 130여개 산을 답사하며 그린 '산' 시리즈를 발표했던 그가 최근에는 국내 첫 아시아 고건축 회화전을 다룬 '동양의 원형' 전. 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열리는 '동양의 원형' 전. 80호에서 100호에 이르는 대작 120여점을 통해 동양의 고건축물과 고적, 불상 등 아시아의 건축미를 비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956년 국전에 출품했던 '불전'을 비롯해 우리나라 불상 및 고건축물을 화폭에 담은 1962년까지의 작품과, 지난 1996년부터 올해 초까지 6년간 불교미술의 발달지인 중국 태국 몽골 등 아시아 13개국을 현장 답사해 화폭에 담은 근작들을 아우른다. 이 중 한국건축은 석굴암, 부석사 무량수전, 범주사 팔상전, 경복궁 근정전, 종묘 등 20여점. 나머지 80여점은 중국 베이징의 자금성과 이화원, 일본 나라의 호류지와 도다이지 등 외국 건축물이다.

오 화백이 이처럼 오랜 기간 동양의 고건축에 매료된 이유는 "동양의 원형은 동양의 그적에서 찾을 수 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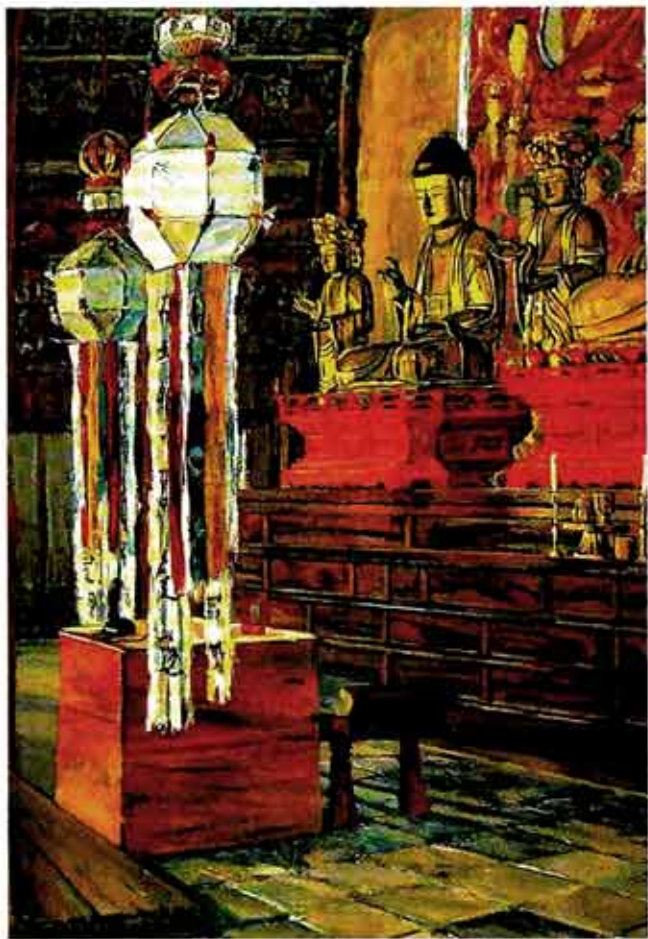
6년간 아시아 각국 답사  
불상·고건축물 화폭에 담아  
19일까지 예술의전당 전시



◇오 화백의 자연과 전통에 대한 끊임없는 애착과 동경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고향을 찾아다니는 구도행과 다름없다.

「'동양의 원형전' 여는 오승우화백」

## '동양정신의 근원' 찾아 40여년 그림순례



◇1957년 작 화엄사 '법당 내부' (194x130cm).

생각에서다. 건축은 문화의 결정체로서 심미적으로는 '응고된 음악', 학술적으로는 '돌로 만든 역사책', 문화적으로는 민족문화의 흥망성쇠를 나타내는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25세 때 화재로 소실된 공주 원효사의 후불탱화를 의할머니와 아버지의 권유로 그리면서 불교미술을 처음 접한 것도 이런 생각의 뿌리가 되었다.

당시 탱화의 원색적인 색채의 조화가 주는 강렬하고 원시적인 미를 체감한 그는 해남 대흥사 대웅전을 첫 작업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때의 인상은 이러했다.

"황금으로 도금된 3위의 불상, 그 위에 적색의 일산(日傘), 원색의 후불탱화. 그 황홀함은 마치 별천지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100호 회화를 놓고 미친 듯이 그린 이 작품이 제5회 국전에 입선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이 김제 금산사 미륵불과 구례 화엄사 각각전. 한 달 이상씩 온갖 정열을 쏟아 부은 정성과 부처님의 가르침 '각행전'과 '미륵전'은 제 6·7회 국전에 거꾸로 특선됐다. 이어 8회 국전 특선에 보은 범주사 '팔상전', 9회 역시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이 연이어 특선에 올라 29세의 나이로 최연소 추천작가가 되었다. 한 여름 폭염이 내려 쏘이는 절마당에서 쫄쫄한 달빛 정성을 들인 그림들이 드디어 세상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셈이다.

이 무렵의 경지를 오 화백은 '공(空)'이라고 말한다. 그림에 미쳤다는 뜻이 아니라, 미쳤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다는 해석이다. 미치도록 깊은 몰입에 환희심이 있었다는 것이며, 그것이 점차로 가라앉아 성숙되고, 이러한 절대지상의 신심이 '공(空)'에 가까워 되더라는 얘기다. 이른바 번뇌의 경계를 떠난 '니르바나' 속에 유유자적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미학(estetique)'이란 '신비(mystique)'를 다르게 부른 이름이며,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두 개의 잎을 뜻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오 화백은 그 후 해인사, 마곡사 등 고찰과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등 31세까지 7년간 고적을 그렸다. 그 후 새로운 소재가 없어 오 정(楮)를, 민속놀이, 한국 100산 등 소재를 바꾸어 가며 '동양정신의 탐구'를 계속했다.

전통의 재해석을 시도하는 그의 작업은 마치 구도의 만행을 떠나는 남자의 심정과 같았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소재한 그의 화실이 일련의 절반가량 '부재중'인 것도 이를 말해준다.

130여개의 한국 명산을 비롯, 중국 티베트 인도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유럽 등의 오지를 시도 때도 없이 순례했다. 고성을 무릅쓰고 내륙지방이든 변방이든, 지구촌 곳곳에 수많은 발자취를 남겼다. 오 화백이 자신의 이런 도정을 '적행'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현재를 더 잘 알기 위해 옛 것을 찾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자연풍경이나 이국적인 정서를 찾아서 실경을 묘사하는 이른바 진경산수(眞景山水)의 화가와와는 다르다. 탐

'현재를 더 잘 알기 위해  
옛것을 찾는다' 확신  
강렬한 색채·터치 '눈길'

미의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양적 진리의 근원을 찾아내려는 구도의 순례자다. 대담한 필치와 생략된 구도 속에서 또 다른 생명력의 원천으로 접근하려는 그의 의지도 이를 반증한다.

동양의 자연과 건축을 그렸으며, 그가 그려낸 화폭은 전혀 다른 분위기의 현대 표현주의적 기법으로 재창조된다. 그는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여 굵은 붓으로 가로 세로 반복하여 오르내리면서 그리는데, 그 열정과 힘이 세차다 못해 거칠게 느껴진다. 그는 대부분 거대한 형태의 풍만한 구도를 사용하고

세부묘사를 버리는 방식으로 대단한 기세를 화폭에 담는다. 나는듯, 내뿜듯, 겹겹이 중첩된 듯한 율동구조를 많이 사용하여 호방하고 기운찬 미학적 특색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특히 오 화백의 그림에서 사찰들의 윤곽이나 세부묘사는, 한결같이 배제되고 있으며 빛

으로 둘러싸여 있다. 유준상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오 화백의 색채는 밖에 있는 색채가 아니라, 그의 니르바나에서 솟아나는 색채"라고 평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은 다 정신화·이상화된 것이지만, 여전히 역사와 지금의 현실 그 자체를 반영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오 화백의 그림은 색채의 직접적인 호소력을 통해 사람의 불성 속에 내재하는 불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심'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부처님의 마음이라 하겠기에, 그 불심이 애당초 우리 속에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처를 알 수 있었는가.

오 화백은 지난 96년 선천적으로 좋지 않은 시력이 갑자기 나빠져, 화가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실명 위기를 맞았다. 독일에서 수술을 받아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됐지만 지금도 2년여 한 번씩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 오 화백은 실명 위기를 겪은 뒤 "눈이 아닌 마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주 원효사의 중창주인 의할머니, 원효사 후불탱화를 그린 아버지 오지호 화백, 백련사 및 능인선원 신도인 부인 정금애(68) 보살, 동국대 교수미하인 장남 병우씨 등 대대로 불심 깊은 예술 가족을 둔 오 화백, 처음 불화로 붓을 잡았듯이, 마지막 남은 살도 불상과 사찰을 그리며 '불도(佛道) 아닌 불도'로 회향하고 싶다는 것이 노 화가의 권력이다.

글=김재경 기자 jkim@buddhaya.com  
사진=고영매 기자 ygol@buddhaya.com

### 예술원 회장 차범석씨가 본 오승우 화백

#### "작품앞에 서면 '구도의 삶' 보여"

오 화백이 수년전 이른바 '산' 시리즈의 역작들을 발표함으로써 그의 작품세계에 하나의 획을 그었던 기억이 새삼 되살아난다. 그것은 단순한 대경(對景)에 대한 탐미가 아니라, 산에서 땀을 찾아내려는 구도(求道)의 몸부림이었다면 나의 지나친 독단일까. 대담한 필치와 생략된 구도 속에서 또 다른 생명력의 원천으로 접근하려는 오 화백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차범석씨

그런데 이번에는 사원과 궁전 등 고건축을 대상으로 중국과 동남아 각지의 고궁과 불교건축을 섭렵하는 고건축물 시리즈를 시도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머지 않은 생명의 신선감과 생동감의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고궁과 사원건축을 주제로 한 '산' 시리즈와는 달리 보라색과 분홍색을 즐겨 구사하며, 역시 대담한 생략기법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작품 앞에서 다시금 오 화백의 불교적 귀의심(歸依心)을 느낄 수 있었다.

### 갈증 해소와 전염병 예방

신인(神人)과 악속한 스무하루 동안, 변화무쌍한 오행과 풍수지리와 천문을 통달하고 이제 마지막 남도 육박리와 지리산 자락을 통달하려는 순간, 마지막 밤의 달빛이 그만 구름 속에 숨더니 칠후 같은 어둠이 덮었다. 구름 속에 숨어버린 달을 안타까워하던 도선선사는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도할 땀을 흘렸다. 잠시 후, 강가에서 시들어 가던 매화나무가 점차 매화꽃을 피우더니 어둠 밤을 비추듯 밝게 빛나고 있었다. 도선선사는 매화꽃이 뿜어내는 광채 덕분에 모래지도의 마지막 부

분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후 도선선사는 풍수지리의 비결을 세상에 회향하였다. 그 후 스님은, 매화나무의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지팡이로 만들어 갖고 다니셨는가 하면, 백계산 자락에 옥룡사를 짓고 그 주변에 매화나무를 심어, 오늘날 순천, 광양, 구례, 하동지역에 매화나무와 그 열매인 매실이 많이 나는 것은 도선선사의 손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 약선식연구가 <산사에가면 특별한 식단이있다>저자

### 만드는 법(1~2인분)

- 재료: 매실(조금 누르스름한 것) : 소금 = 100 : 20, 솔잎 약간
- 요리법: ① 먼저 매실을 하룻밤 물에 담가 핏은 맛을 낸다. ② 매실, 소금, 솔잎을 유리병이나 도자기에 넣고 누름돌로 눌러 무릎을 덮어 냉암소에 보관한다. ③ 3~4일 뒤, 물이 올라오면 따라내서 매실초로 이용하고, 매실소금장아찌로 먹거나, 고추장에 살짝 버무리면 매콤한 맛이 여름의 미각을 돋운다.
- 효능: ① 갈증을 없애고 담을 덜어주며, 토사곽란과 화질을 다스린다. ② 급성위장염, 맹장염, 장티푸스, 폐결핵, 녹막염, 피부병에 좋다.

### 정세채와 떠나는

### 선·식·기·행

#### 매실장아찌



전남 구례에서 화엄사로 올라가는 길에는 사도리(沙道里)라는 곳이 있다. 이곳이 바로 도선선사가 풍수지리를 배운 곳이다. 도선선사의 꿈에 한 신인(神人)이 나타나, '내일 강가에 나가면 풍수비결이 그려진 모래지도가 그려져 있을 것이니, 반드시 스무하루 동안에 그 비결을 통달해야 하오'라고 전했다.

날이 밝아, 꿈에 본 그 장소를 찾아 가니 모래 위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사람 몸의 360혈 자리가 병을 치료하듯, 심천리 금수강산에 3,800개의 중요한 혈이 있어 그 곳에 절을 지으면 국가의 병란을 막고 국운을 융성케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혈자리보다 더 많은 절을 지어서도, 더 적게 지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